

장만채호 전남교육 핵심사업 '흔들'

도의회 교육위, 대안학교 시설비 등 내년 예산 386억 삭감

전남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면서 교육 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2011년도 도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공립 대안학교 시설비 등 모두 386억1627만5000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대안교육 시설인 이른바 미래형 특성화 중·고교는 강건과 곡성에 설립될 예정이

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무안 송달유치원과 순천 좌야초 신설비 등 학교 시설비 관련 35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사업비 1억2300만원과 전남교육 주요 시책 등을 수립할 미래위원회 운영비(2358만원)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7일 오전 농림식

모제(1524만원) 등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이른바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도 75억 원 중 35억 원이 삭감돼 40억원만 운영됐다.

지역교육청의 포괄사업비(40억원)도 절반이 삭감됐으며 교사들의 국외 연수비도 3억 원이 삭감돼 2억4천여 만 원만 반영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측은 "교육감

포괄사업비는 썩지돈 논란으로 인권 위원회가 폐지 건의를 검토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만큼 삭감 등은 당연하며 일부 사업 등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도 교육청측은 "대안학교 설립은 공교육의 책무며 인권조례는 학생, 교사 등을 모두 포괄한 것인데도 삭감됐다"는 반응이어서 집행부와 도의회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2조5780억원이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왼쪽부터)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의회 내년 농정예산 심의 '보이콧'

"집행부 예산 삭감은 '농업 포기' 선언" 비판

전남도의회가 7일 전남도의 '2011년 농업 정책 관련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쏠린 것도 모자라 전남도마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농업 포기', '농도(農道) 전담' 포기 선언으로, 농업뿐 아니라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한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7일 오전 농림식

품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농정 예산이 지난해보다 14.9% 삭감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집행부가 예산 재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예산심의 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정 관련 예산(8096억 6735만5000원)이 전년도(9519억 8915만6000원)에 견줘 1423억2180만1000원(14.9%)이나 삭감된 것은 사실상 전남도의 '농업 포기' 선언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도의회 주장이다.

정정성(구례·민주)의원도 이날 의

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북이나 경남의 경우 농업 예산이 늘어났는데, '농도'라는 전남은 오히려 농정예산을 1000억원 넘게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자"고 요청했다. 전북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내년 예산은 4.4%, 경북은 14.3% 늘어난 반면, 전남도는 14.9%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특히 전남도가 농민 처우 개선 및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자체 사업을 무더기로 중단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 등 42개 자체 사

업(96억1300만원) 예산을 줄였고 농산물 가공 생산시설 지원(3억원) 등 34개 사업(18억8100만원)은 일부를 삭감해 편성했다.

김한중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지만 도비까지 줄어든 것은 유감"이라며 "집행부가 도비 삭감분을 복구시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 농수산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맞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전남도에서 농어촌공사사업으로 옮겨가면서 그 예산이 빠진데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이에 포함되는 지방비의 매칭규모도 감소해 도의 농림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韓·美·日 “北 도발중단 요구” 中 역할 촉구

3국 장관회담, 中 제의 '6자재개' 사실상 거부 ICC, 연평도·천안함 전범행위 예비조사 착수

한국, 미국, 일본은 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리측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기구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3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3국 장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3국 장관들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우려 농축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규탄했다"면서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장관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확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3국이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북

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카모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와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로마조약에 따라 ICC가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학생 학업성취도 OECD 최상위권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센지 런던서 체포

읽기·수학 1~2위, 과학 2~4위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실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4위에 오르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7일(현지시각)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65개국 학생 약 4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한국은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에 들었다.

읽기와 수학 평균점수는 각각 539점, 54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과학(538점)은 핀란드(554

점, 일본(539점)에 이어 3위였다.

'공교육 강국' 핀란드는 읽기와 수학 평균 2위, 과학 1위로 세 영역 순위가 우리와 비슷했다.

PISA 결과는 오차를 고려해 점수차가 확연히 크지 않을 때는 각국 순위를 1~2위처럼 범위로 표시한다. 지난해 5월 치러진 PISA 2009 본검 시험에는 국내 137개 고교와 20개 중학교에서 5123명이 참여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전체 참여국(65개 나라)을 모두 비교한 순위에서는 한국이 읽기 2~4위, 수학 3~6위, 과학 4~7위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부터 처음 참여한 상하이-중국기 세 영역에서 모두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휩쓸었다. /연합뉴스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한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39)가 7일 오전(현지시각) 런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경찰은 스웨덴 사법당국이 어센지에 대해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어센지는 런던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안은 어센지를 출석시킨 가운데 스웨덴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보석으로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어센지는 지난 8월 어센지가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스웨덴 당국은 최근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어센지 측은 그러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어센지 측은 스웨덴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그의 국가기밀 공개 행위에 대해 간첩죄 적용을 검토 중인 미국으로 압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스웨덴으로의 이송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어센지는 자신이 체포되거나 웹사이트가 불능화되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밀문서를 포함한 '최후의 심판 파일(doomsday files)'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오늘은 과학과 정치 소통의 날

호남 등 4개 권역 의원·과학기술인 현안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이하 한국과총) 등 과학기술인들이 처음으로 정치권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한국과총에 따르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은 전국 4개 권역별 과학기술인들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지역 과학기술 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4개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남, 부산 지역연합회 ▲대전, 충북, 충남지역 연합회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연합회로 나뉜다.

참여 과학기술인들은 새로 출범하는 국회의원 과학기술 자문단을 비롯해 과학기술유관단체소통협의회 참

여 기관장, 지역 과학기술인, 학회 대표 등이다.

참석 예정인 의원들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반제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서상기, 최구식, 김진표, 천정배, 이상민 의원 등 여의원이 풀고 루 포진하고 있다.

의원들과 과학기술인들이 얼굴을 맞대고 논할 이슈는 과학기술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글로벌 철도 인제 양성, 스텝스 및 바텔연구소의 국책연구 활용,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확대, 과학기술 관련 법안 설립 허가권 지방이양 등이다. /연합뉴스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최신형 KDVD-2300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상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직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어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로컬내 최대곡이 내장되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매문의 02-522-4355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켈런트 시계가 야심 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까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 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맛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 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는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이다. 남성의 탈모와 원인은 모낭위축이다. 원인이 다른 제품도 달라져야겠지요? 모낭에 영양공급이 바로고 강해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진다.

(통신판매인증 제19-5301호)

대히트 오래~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통풍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명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위생기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